남천스님은? ——— "자신도 모르면서…" 청담스님의 일갈 화두로

최근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로써 다시 그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있는 청담스님(1902~1971)은 남천스님의 출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지식이다. 남천스님이 18세 고등학생때의 일이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스님은 친구들과 수덕사 뒤 덕숭산에 놀러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다 청담스님을 만났다. 집안이 가톨릭이었던 남천스님은 당시까지만 해도 스님들 하면 무위도식자, 즉 얻어먹고 노는 사람들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다.

청담스님은 고등학생들에게 "이놈들 어디 가냐?" 물었다. "산에 놀러간다"고 하자 청담스님은 곧장 "네 자신도 모르면서 어디를 찾아당기노?" 쏘아부쳤다. 이어 남천스님을 보며 "예 종교가 뭐냐?" 물었다. 천주교라고 대답하자, "저 자신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남을 믿고 다녀" 했다. 청담스님의 이 일갈은 18세 고등학생에게 화두 아닌 화두가 되었다. 남천스님은 청담스님을 찾다가(당시는 서울에 산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예산 탈해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통도사 월하스님을 은법사로 모셨다.

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며 정진과 가람 수호에 주력해 오다 95년부터 포항시 연일읍 자명2동, 화주산(華周山) 약사원(藥師院)에 주석하며 대중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로운 날

스님은 수십년동안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신도들에게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해 포항시 연일읍의 소년가장들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진정한 대승불교가 돼야 합니다. 대비구세(大悲救世)의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불교의 본모습입니다."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인과가 엄연하다는 것만 제대로 체득해도 불교계 뿐 아니라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는 원인과 결과 라고 하는 인과율에 의해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하며 인이 되고 과가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예쁘다거나 밉다거나 분별할 것이 없으며 애착해 가지려 하거나 싫어서 멀리 할 것이 없어요.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모든 것이 결과지어진다' 이 이치를 깊이 체득해야 하는데 말로만 알기에 항상 분별망상을 갖고 무명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불자들이 유의해야 할일

허명좇아 몰려다니지 말라
가르침 정확히 알고 실천을
자신 돌아보는 시간 꼭 갖도록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부질없는 행위를 그치고 오로지 좋은 인연을 쌓아 육도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불자들은 다행히 불교와 인연이 되어 수승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대부분 제대로 배우려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저냥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신다. "부처님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들도 지금 당장 업보를 받지 않는다고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롭게 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경전에도 '선에는 선보가 있고 악에는 악보가 있으니 지금 그 보가 없다 하지 말라. 단지 그때가 안 되었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업의 과보는 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해 스스로 닦고 경계하며 주변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며, 사는 동안 무수한 괴로움을 겪는다. 생로병사, 이 근본적인 괴로움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대신 자식의 병을 앓아줄 수 없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의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한다. 남천스님은 바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코자 출가하고 그 의문을 해결한 스승이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신 길대로만 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신다.

남천스님은 상좌들의 공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어느 제자는 강사로 있고, 봉선사 월운 노스님밑에서 계속 공부하는 제자도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실 정도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상좌인 시광스님(부산 보련사 주지)은 "우리 스님은 외곬수적 수행자"라면서 "그동안 꽤 많은 절의 불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는 바로 다른 이에게 주지 자리를 넘기고 훌훌 털고 나오신 적이 여러번"이라고 귀띔했다.

스님께 불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다. 세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몰려다니지 마세요. 어느 스님이 유명하다, 법문을 잘 한다 해 이름만 찾아 다니는 불자보다는 자기를 찾는 공부 해야 진짜 불자예요. 찾아다니려면 진실로 선지식을 찾아 하나라도 자기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불교가 무엇을 지향하는 종교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불교를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수라 봅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말고 내가 노력해 짓는다는 정신으로 이타행을 많이 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에 보시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해요. 저 스님이 이 보시를 다른 일에 쓰는 것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믿음 갖고 수행해야 진전이 있고 성취가 있는 법입니다.

셋째, 바쁘게 살아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 풍성히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았나 참회하고 다시 불자로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불자들은 사홍서원을 늘 부르잖아요. 나에게 본래 불성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 마음을 깨쳐 성불하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우고 염심히 정진하세요"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貪則憂'도 소개해 주셨다.
항상 만족해하고 하심을 한다면 어디서나 극락이란 욕심이 생겨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그곳이 로 지옥이라는 것이다. 예전엔 스님들이 옷 한 벌 어입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뭐든지 풍하니 도리어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시주물의 고마을 알고 하심하라는 것이다. "요즘은 다들 복이 많요. 천지가 책이고 강원도 많으니 공부하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책도 있고 배울 곳도 있잖아. 우 젊을때는 책 하나 얻으려면 어른 스님들에게 여 번 이야기 해 간신히 얻어 책장이 떨어지도록 보 또 봤는데…"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보리스님

덕숭산 수덕사는 근대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만공스님의 법맥이 이어지는 도량이다. 그런 까닭에 산세가 작고 가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삼보사찰에 이어 조계종 덕숭총림으로 지정되어 그 위상과 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경허스님의 어록을 보면 늘 '호서로 돌아가는 승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허스님이 늘 돌아가고자 했던 그 '호서'는 바로 수덕사를 중심으로 서산의 천장사, 개심사, 부석사이다. 이 곳 절들은 경허스님의 보림처이며 선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고 후학지도의 인연이 익어진 곳이다. 경허스님은 무애자재의 행으로 일세를 풍미한 무애도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사의 걸림 없는 무애행은 출가 스님들뿐 아니라 세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경허스님의 활달한 선풍은 만공스님과 그 법손을 통해 덕숭산의 가풍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보리스님은 이런 덕숭산의 가풍을 잇고 있는 스님중 하나이다. 아직 스님은 젊다. 이제 삼십 중반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수덕사 생활



은 30년이 다 되어간다. 흔히 말하는 동진으로 절에서 자랐고 일찍 계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덕숭산의 가풍운운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다. 그렇지만 덕숭총림 정혜사 선원을 한철이라도 난 스님은 보리스님이 덕숭산 가풍을 잇고 있음을 다들 기꺼이 인정한다.

보리스님은 늘 맨발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옷은 다 낡아 떨어지고 군데군데 불구멍이 송송 나있다. 어깨는 장정처럼 떡 벌어져 있고 사람을 만나면 씩~ 웃는 웃음이 순박한 마을 총각을 연상케 한다. 생활이 일이고 일이 생활이라, 보리스님은 빗자루와 물양동이가 손에서 떠날 새가 없으니 양말은 신으나 마나고, 아궁이 앞에 앉아 공양주를 마다않으니 옷에 불구멍 가실 날이 없다. 보리스님은 선농일치(禪農一致), 선수행과 농사일을 한결같은 본분사로 삼으셨던 덕숭총림 2대 방장, 벽초 노스님을 꼭 빼 닮았다. 실제로 벽초 노스님의 무릎에서 자랐다는 보리스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노스님의 생전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노스님께서는 방장으로 계시면서도 "큰스님"하고 부르면 "노스님이라고 불러"하시고 절을 올릴 때면 "한번만 해, 한번만"하시며 삼배받기를 사양하셨다. 법상에 오르지 않으니 큰스님이란 호칭도 법사에 대한 삼배례도 당신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혹 신도가 인사를 한다고 하면 보리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큰스님 옆에서 자라면서 신도의 절 받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잘 아는 까닭이다.

계를 받기 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부터 수덕사에서 정혜사까지 1080계단을 쌀 지게를 져서 나르고, 공양주를 살면서 수좌스님과 신도들을 시봉하더니, 계를 받고 나서는, 하는 일은 똑 같이 하면서 칠철이 선방에 앉아 정진에 들어가더니 십여년 세월동안 한철도 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양주가 복짓는 일이라고 혹 다른 스님이 공양주 살기를 원하면 두말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누구든 소임보기 싫어하는 일을 맡기에 꺼림이 없다. 십년, 십 오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랫자리가 많아지고 점점 윗자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눈치다. 맘껏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게 갈수록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대중이 움직이는 일을 즐겨하진 않지만 절대 빠지지도 않는다. 분명 얼굴을 보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할 말이 있으면 보았을 때 하거나 약속을 해야지 일없이 오가는 법이 없다.

덕숭산 가풍이은 동진출가자
겸손함으로 자신의 흔적 감춰

보리스님은 무학이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잠깐 학교의 인연을 만들기는 했으나 학교의 인연이 절의 인연과 병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타고난 총기로 필요한 공부는 절에서 스스로 마쳤다. 그래서 보리스님의 수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단다. 제도적으로 계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라 이미 뼛속까지 스님 사상이 배었는데 수계를 인정할 수 없다니 난감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 스님의 지나온 이야기가 전해지고 덕숭산 가풍의 현대의 계승자로 인정돼 버렸다. 아직도 이런 옴골은 동진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오래전부터 수덕사에는 동자들을 키워왔다. 절에서 키우는 동자들은 더러 가출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절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지만, 보리스님과 함께 자란 정혜사 동자들은 든든한 맏형 보리스님 덕에 다들 잘 자라 대학도 가고, 출가하여 계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부끄럼이 없고 스님들도 떳떳한 일이 되었다.

적지 않은 동자들이 절과 인연을 맺고, 자라서 계를 받기도 하지만 보리스님 같은 동진출가는 참 귀하고 귀한 일이다. 옛 스님의 발자국을 밟아가며 오직 실천행으로 수행의 기본을 삼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안으로만 자신을 찾아갈 뿐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新禧!!!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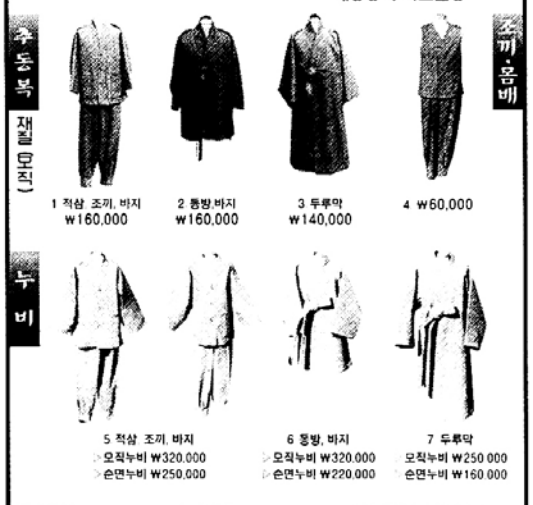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